

대한속기협회소식



제6호 99.9.20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지대섭/편집인:김선옥/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전화:788-2371~7 FAX:788-3560~1

21세기에 우리는 ...

-지식사회의 세 가지 능력-

우리는 지금, 1백여전 전 곡괭이와 호미로 일을 하던 농경사회에 살지 않는다. 각종 기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던 산업사회도 지나가고 있다. 곡괭이와 호미가 농경사회의 도구였고 각종 기계가 산업사회의 도구라면 지식·정보사회의 도구는 휴대폰, 팩스, PC, 인터넷 등이다.

농경사회에서 주요 생산요소는 토지였다. 산업사회의 주요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다. 지식·정보사회의 주요 생산요소는 당연히 지식과 정보다. 정보와 지식은 정보고속도로와 정보도구를 이용해 전세계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게 못되는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한번 얻은 졸업장이나 자격증, 그리고 터득한 기술의 효력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어떤 정보나 지식의 효력이 오래 지탱되지 못한다. 그런 지식·정보사회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세 가지다.

첫째,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다. 백수십년 전에는 전쟁정보를 남보다 한발 앞서 수집하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보냈지만 지금은 브리태니커 사전 33권 1질을 단 2초만에 전송할 수 있는 시대다. 연기 신호를 이용하여 일기예보를 설명하는 53개의 단어를 만드는 데는 약 7분이 소요된다. 2시간짜리 영화를 보낸다면 반세기가 걸릴 것이다. 오늘날의 전화선은 연기신호보다 6만배 더 빠르다. 동축 케이블과 인공위성을 연결하면 50만배 더 빠르다.

현재 실험중인 최상의 광섬유는 1조배나 더

빠르다. 대폭(bandwidth)이 지나는 기술적인 한계는 압축(compression)이라는 기술을 통해 극복된다. 이런 시대에는 정보의 소재 파악(knowwhere)과 접근능력이 중요하다.

둘째, 그 지식들을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능력이다. 연로한데도 불구하고 신간서적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가공하여 자신의 글의 기초로 삼는 피터 드러커 교수처럼 말이다. 그는 “한국은 땀과 근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달성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을 이용하여 선진국을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억력이 아니라 창의력과 응용력이 더 강조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능력이다. 오늘 최첨단 기술이 내일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이다. 사무용 기기를 예로 들자면 필자가 30년 전 직장생활을 할 때는 주판으로 일했으나 그후 전자계산기로, 지금은 PC로, 그것도 2~3년마다 새로 나오는 신제품을 쓰고 있다. 신제품은 그때마다 가격은 더 싸고 성능은 더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의 반감기(half life)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초중고 시절에 배운 지식은 20년,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10년, 기업의 교육훈련은 5년, 컴퓨터 관련 지식은 1년만 지나면 반으로 줄어든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지 않으면 곧 뒤지고 만다. 지식사회의 3가지 능력을 요약하면 정보수집능력, 지식가공능력, 그리고 학습능력이다.

- 이 글은 한국경제(99.8.13)에 실린 대구대 이재규 교수님의 칼럼을 발췌한 것입니다.

더 김한민
or 다른 후배에게



협회소식

제7회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협회는 지난 6월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제7회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간 우리 나라 기록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속기계의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다가오는 21세기 기록문화의 과제와 그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바쁜 국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지대섭 회장을 대신하여 권용태 부회장의 인사말이 있는 다음 「기록문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호일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신 정호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회의록의 역할과 입법지원」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국회의 기능중 가장 본질적이고도 전통적인 기능이라 할 국회에서의 의안처리과정을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정호영 전문위원의 남다른 '속기인 사랑'의 말씀은 자리를 함께 한 회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저녁식사 후 한쪽에서 속기경시대회가 열리는 한편 남은 회원들은 각 10분임으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하였는데 이는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서 맑고 총총한 여름 밤 하늘 아래 열린 여흥시간은 남녀노소 회원들 모두가 하나되어 게임, 노래, 춤으로 양지별관을 뜨겁게 달군 '화합의 마당'시간으로 이번 세미나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튿날 아침식사 후 약간의 우왕좌왕함 끝에 열린 축구시합은 예정했던 '40인 축구시합'은 아니었으나 날씨만큼 뜨거웠던 시합을 치렀는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최측의 계획적인 행사진행이 아쉬웠던 순서였다.

둘째날의 주제발표는 국회사무처 속기과에 근무하고 있는 홍기표 회원의 「속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속기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한 것이어서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알찬 강의가 되었다.

이상의 모든 주제발표가 끝난 다음 최황수 이사장의 간결한 폐회사와 함께 참가회원 전원이 사진촬영을 끝으로 제7회 속기학술세미나의 막이 내려졌다.

'99 서울국제컴퓨터문화축제

7월24일~29일 6일간 COEX 태평양관 제1전시장에서 서울시와 MBC문화방송의 주최로 '99 서울국제컴퓨터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에서 발간된 회의록에 대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한 국회회의록시스템과 입법정보서비스시스템을 전시하였으며, 안기철 회원과 이봉선 회원이 이 전시회의 시연요원으로 참석하였다.

국회회의록시스템 주소; <http://node3.assembly.go.kr:5005>



제182차 이사회 개최

'99년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소회의실에서 대한속기협회 제18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은 가. 제7회 속기학술세미나 및 속기경기대회 결과보고, 나. 의회속기사부(IPRS) 참가에 따른 보고, 다. 협회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건, 라. 기타사항 등이었다.

이 중 다항, 협회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는 협력업체를 한백C&D(대표: 송효곤 회원)로 결정하고, 금번 정기국회 전까지 구축하기로 하였고, 라. 기타사항으로 강남문화원 생활속기강좌 지원 문제를 제기하여 이사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개설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강사를 지원키로 하였고, 자격검정시험의 협회이관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전 11시 50분에 산회하였다.

미국속기연맹 100주년 기념행사 및 IPRS 회의참석

김창진 회원(협회 연구위원장, 국회), 김영중 회원(협회 재정부장, 국회), 김미라 회원(국회), 신종식 회원(대전 중구시 의회)은 1999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14박 15일 일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열린 NCRA(미국속기연맹) 100주년 기념행사 및 IPRS 회의에 참석했다.

첫날 Boston Federal Courthouse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Realtime Competition에 참관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몇몇 속기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Star Spangled Brunch 행사에 참석하여 각국 속기사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값진 시간을 가졌다.

Centennial Breakfast 행사에서는 NCRA 회장 Viki의 인사말과 특별강사로 초청된 ABC방송국 앵커 Ann의 축하강연 등이 있었는데 NCRA 조직 규모의 방대함과 그들의 왕성한 활동력을 볼 수 있었다.

7월 30일 오전에 열린 IPRS 회의에서는 NCRA 회원과 IPRS 회원이 같이 모여 각각 자기 나라의 속기시스템과 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그 자리에서 대한속기협회와 국회 회의록 발간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오후에 열린 순수한 IPRS 회원만의 모임에서는 차기 2001년 총회를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현 사무총장 Peter Walker의 임기만료에 따라 Ronald G. Tremaine(캐나다)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 일본속기협회 이사장, 부이사장, 중의원 속기사, NCRA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아라키씨 등과 만나서 상호간의 의견교환 시간을 가졌다.

회원동정

지대섭 회장 소식

- ▶ 7월4일, 지리산 송원리조트에서 열린 세무대학회에서 '한국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
- ▷ 9월9일, 광주 전남대학 사회교육원 21c지도자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진로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특강
- ▶ 9월9일, 전남 광주 MBC라디오 칼럼녹화

권용태 부회장 소식

- ▷ 7월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회원소식

- ▶ 안정근 회원: 서울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청각장애인 및 난청자를 위한 '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창립 기념식(99.7.7)
- ▷ 전남영 회원: 충청남도 당진 합덕초등학교 발령(99.8.20)
- ▶ 유순태 회원: 지난 8월23일부터 성남에 소재한 성남기능대학에서 '대학국어'출강, 현재 社史, 회고록 대필 및 출판인쇄용역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도움사와 속기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 일본속기협회의 회원 兼子次生으로부터 '日本の速記'(1999.8/9월호)수신

승진 · 축하합니다

- ▶ 성천영(국회사무처)/서기관→부이사관, 속기1과(99.9.1)
- ▷ 고석광, 김은숙, 배영수(국회사무처)/속기사무관대우, 속기1과(99.7.1)
- ▶ 오근순, 유미형, 유점임, 정향인(국회사무처)/속기서기보→속기서기, 속기1.2과(99.7.1)
- ▷ 이범준(국무총리실 의사과)/주사보→주사(99.9.7)

전보 · 수고하셨습니다→반갑습니다

- ▶ 송기철(국회사무처)/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전문위원(이사관)→국회사무처(99.9.1)

교육 · 수고하셨습니다

- ▷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교육(국회 속기과)(99.9.8)/ 강사: 박정호 회원, 홍기표 회원
대상: 속기과 전직원

전시회 · 축하합니다.

- ▶ 국회사진동우회전시회/황인하, 양진숙, 한순덕, 유희연, 이순영, 손숙자, 남미경, 정 숙
장 소: 국회사무처 지하1층 우천시출입구
일 시: 9월3일~9월7일
- ▷ 제21회 尙筠書會展/손재옥, 김학순, 정명순, 조신자
장 소: 세종문화회관(제1전시실)
일 시: 9월2일~9월5일